지혜는 살리는 힘이다

(잠언 11:24-25)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자산입니다. 돈과 학벌입니다. 돈이 사람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지식과 학벌은 신분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고, 돈을 빌려서라도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윤택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돈과 능력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상식에 동의할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추수를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가 열매가 되고 물질의 부유함을 가져다줍니다. 그냥 추수는 내 땅에 심고 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흩어 구제하여도"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때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과도히 아껴도"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땅에서만 추수하고 내 열매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가난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25절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 메마른 땅을 찾고 메마른 영혼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윤택하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물을 넉넉하게 대주어 적신다'는 의미입니다. 메마른 땅을 찾아 물을 넉넉하게 대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메마른 땅을 윤택하게할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풍족하고 받는 사람도 윤택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땅에만 씨를 뿌리고 심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에게 쌓여가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흩어 구제하고, 메마른 땅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혜의 말씀, 잠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난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의 유익을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는 살리는 힘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연결하는 순간 발휘됩니다. 2003년 8월 14일 미국 북동부 대정전이 발생했을 때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떤 지하의 식료품 체인점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에어컨이 꺼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는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아서 물건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전력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바구니를 든 채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고, 그렇다고 손님들을 모두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 직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손님들에게 카트에 담긴 모든 물건은 그 자리에 놓아 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2번 '손님들에게 일단 쇼핑한 물건은 집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한다. 그리고 편한 시간에 다시 와서 물건 값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한다. 3번,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은 모두 고소할 거라고 경고를 한다.

그 마트 직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1번, 2번, 3번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물건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주세요. 모두들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해고되기 딱 좋은 상황이 아닐까요? 식료품 체인점 본사에서 조사해보니 그날 정전으로 발생한 손실이 4천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약 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고, 얼마 후에 전국 방송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마트에서 얻은 이익을 계산해 보니 5억이 넘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흩어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이 있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연결하는 힘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과 소외된 이웃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메마른 영혼을 찾아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고, 영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 POIEMA JESUS CHURCH